문학실험실
미지의 언어 탐구

보도자료

2015년 7월 7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7 한려빌딩 302호 | 전화 02-765-9682 | 팩스 02-766-9682
휴대전화 010-9609-9682 | 이메일 munhak@silhum.or.kr | 홈페이지 www.silhum.or.kr

※ 요약 보도문

I. '문학실험실'의 설립을 알립니다.

한국 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실험적 독립 문학 운동

> 누가 왜 무엇을 하는가?
> 문학실험실의 문을 열며 : 작은 선언문
> 문학의 이름으로 : 설립 취지와 활동 계획
> 후원 안내

2. '김현문학패'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김현 25주기를 기점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 제정

> 제정 목적과 특화된 성격
> 선정 대상과 자격
> 시행 절차
> 참조: 김현은 누구인가?

발신: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문학실험실
미지의 언어 탐구

<보도자료 I>

비영리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의 설립을 알립니다.

■ 누가, 왜, 무엇을 하는가?

지난 4월, 총체적 혼란에 빠진 한국 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려는 실험적 독립문학 집단 '문학실험실'이 소규모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창립되었다. 이인성(소설가, 전 서울대 불문과 교수), 김혜순(시인,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 성민엽(문학평론가, 서울대 중문과 교수), 정과리(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등이 발기인이 되어 만들어진 이 문학적 소(小) 공동체는 앞으로 뜻을 함께할 문학인들과 순수 독자들을 한 자리로 모으며 그 본격적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 왜 비영리 사단법인인가? 그것은 진정한 문학 정신이 악성 시장 논리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재단되는 오늘의 문화 현실 속에서, 그 일방적이고 억압적 체제로부터 독립된 문학의 자립적이며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최소한도로나마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공간의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이 소집단 운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실험이 될 것이다.

— 왜 실험문학인가? 대중의 상투적이며 오락적인 취향에 영합하여 문학을 일회적 소모품으로 제작하는 문화산업적 경향에 맞서, 인간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상상력의 치열한 실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소집단 운동은 그런 실험 정신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질적 진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리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20여 년간 고착되어온 이 암담한 문학 현실에 대한 패배-순응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학적 허위의식 혹은 자기기만을 걷어내야 한다. 그로부터 진정 새롭고도 가치 있는 창조적 활동, 구체적 작품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가 깨어있는 비평과 토론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으며 독자들에 의해 심도 깊게 향유되는 올바른 문학 소통의 회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집단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금석이 될 만한 도전적 활동들은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태도로, 문학실험실은 이미 그 구체적 활동 시안들을 마련해가는 중이다.

■ **문학실험실의 문을 열며** (작은 선언문)

여기는 지금 한국 문화 현실의 어떤 모퉁이에 위치한 어둡고 외진 지하 공간과도 같습니다.

이 자리는 그러나 이 땅의 문화를 황폐화하는 악성 시장논리에서 멀찌감치 해방된 문학적 자립과 자율의 공간으로 변모해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므로 인간 정신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도식성 · 상투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실험적 상상력의 자유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리하여 한국 문학의 질적 진화와 진정한 세계화를 도모하는 언어 모험가들의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는, 마침내 이 지하 실험실로부터 흘러나간 문학적 언어의 빛이 캄캄한 문화의 하늘을 조금씩이나마 밝혀나갈 수 있기를 꿈꾸는 자리입니다…

■ **문학의 이름으로** (설립 취지와 활동 계획)

문학실험실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혼란한 문화 환경 속에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 탐구의 작업들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갈 작은 독립 문학 공간입니다.

범세계적 정보화 사회의 근간인 디지털 문명과 그에 편승한 악성 시장논리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결합된 오늘의 문화 체제 속에서, 이제 문학의 독자적 존재 이유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지금 얼마만큼 유효한 것인가?

문학실험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오래된, 어쩌면 낡은, 그러나 역동적으로 역사를 가로질러온 문학의 이름을 걸고, 끝내 그 이름으로 이 세계를 살아내기 위하여!

이를 위한 일차적 활동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학 전문지『쓺-문학의 이름으로』를 발간합니다.

오늘의 문학과 문화 전반의 문제들을 심도 깊게 점검하며 그 극복의 언어를 제시해나갈 문학 전문지를 반연간지로 정기간행합니다.

2)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 '김현문학패'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한국 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 선생의 25주기를 기리며,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실험 정신을 고취하고 그 성과를 부각시키는 '김현문학패'를 제정하여, 매년 시 · 소설 두 분야의 수여자를 선정, 창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본격 문학을 지원하고 참다운 신인 작가를 발굴합니다.

상업적 문화 소비 체제에서 소외된 의미 있는 기존 작가를 재발굴하고 창의적 글쓰기에 도전하는 신인 작가를 새로 발굴하여 그들의 지속적 활동을 돕습니다. 더불어, 실험 정신으로 충만한 문학 · 문화 도서들을 출판합니다.

4) 비평의 올바른 길을 찾는 '문학실험실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 문학의 동력이 되어야 할 문학 비평의 새로운 도약을 기하는 장단기적인 연구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 '문학실험실 포럼'을 정례화합니다.

5) 젊은 작가 집담회 '난상토론'을 마련합니다.

문학 현실의 모순들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젊은 작가들의 집담회 '난상토론'을 마련하여 새로운 문학적 연대의 길을 모색합니다.

6) 문학과 각종 예술의 협업 활동을 기획합니다.

문학의 문학다움을 견지하면서 문학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접 예술 장르들과 대화와 혼융을 시도합니다.

7) 체계화된 문학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문학의 소통 능력과 문학 향유의 질적 수준을 높여줄 문학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제화합니다.

■ 후원 안내

문학실험실은 순수하게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전화: 02-765-9682

홈페이지: www.silhum.or.kr

<보도자료 2>

‘김현문학패’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 제정 목적과 특화된 성격

올해는 한국 문학 비평의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고(故) 김현의 25주기가 되는 해다(6월 27일이 그의 기일이다). 문학실험실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쇄신과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를 되새기며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 상을 제정한다.

한국에는 수많은 문학상이 존재하지만 그 상들의 변별적 특성을 헤아리기는 매우 어렵다. 각 상의 시행 주체가 스스로 상의 성격을 분명히 내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개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이나 출판된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여 비슷비슷한 심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실험실이 새로 제정한 ‘김현문학패’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첫째, 이 상은 김현의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 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 정신을 구체적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둘째, 일정한 선정 조건에서(아래 참조), 단일한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 문학의 한 흐름이 일종의 ‘에콜’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부수적으로 적자면, 비평가의 이름으로 창작 분야(시, 소설)에 상을 주는 것도 특기 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김현은 누구보다도 비평의 군림을 내세우기보다 시인, 소설가의 창조적 문학 세계에 동화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비평을 창작과 동일한 경지로 끌어올린 비평가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상의 선정위원회는 시와 소설을 구분하여 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시인·소설가·비평가가 함께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장르 간의 교감과 문학의 통합적 이해가 한국 문학의 질적 진화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 **선정 대상 자격**

매년 시인 · 소설가 각 1인씩을 선정하되, 그 대상자는,
1)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였고,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저서가 심사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한다(올해의 경우 2012~2014년).

■ **시행 절차**

매년 1월 지난 3년간의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장르의 구별 없는 종합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압축하여 해당 시인 · 소설가의 전 작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리고 매년 6월 말에(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수여자를 최종 선정 발표하고, 9월 말에 시상식을 열어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 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 단, 문학실험실 설립 첫해인 올해에 한해 7~8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특기 사항: 3년간 계속 선정 후보자에 오를 수 있으므로, 선정 과정의 후보자 명단 및 토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참고: 김현은 누구인가?**

창작과 비평의 관계, 문학 이론과 실제 비평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눈부신 전망을 제시했던 김현(1942~1990)은 빼어난 글쓰기를 통해 평론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준 '비평작가'로까지 칭송받고 있다. 한편으론 성실한 프랑스 문학자이자 번역가로서 프랑스 문학 작품과 비평의 올바른 수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온 그는,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관찰자의 혜안을 가지고 문학지 편집자, 출판 편집인으로서의 활동 역시 열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성과 문학 현장의 '술꾼'으로서도 잊지 못할 추억과 인간적 관계를 남겼다.
모국어로 공부하며 성장한 첫 한글세대이며 4·19세대인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성과 다원주의의 가치관을 신념하고 또 실천하였고, 우리 문화와 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샤머니즘과 니힐리즘이라는 시대적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지적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 나아가 미래를 향해 싹트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갈무리하면서 그들의 실험 정신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마다치 않았다. 때 이른 타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열어놓은 넓고도 깊은 비평 세계는 그 뒤의 후속 세대들이 회피할 수 없는 문학적 전범으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김현 약력>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 · 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 · 김치수 · 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 · 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 · 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

* 저서 목록은 김현전집 자료집 462~463쪽 참조.